

무주군, 일자리 창출 탄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2억5000만원 확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 청년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무주군로컬JOB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군은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달 5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19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로컬JOB센터에서 군민들을 위한 구인·구직 알선 및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능력개발훈련과 일자리 만남의 날과 같은 다양한 교육·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등 원활한 일자리 제공과 정보, 교육 등을 국비로 진행하게 됐다.

특히 군은 초고령화 지역인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알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 청년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유출을 막고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사업체를 연결하는 일자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사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직접 교육하는 전문적인 취업교육에 심혈을 쏟을 계획이다. 또 올해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약을 맺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실업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구인·구직 알선과 일자리 서비스 업무를 국비로 진

행할 수 있게 돼 무주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얻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취업 매칭으로 일자리 있는 무주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19년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주군로컬JOB센터를 설립하고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실업급여 및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펼쳐 오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만족하는 일자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민생현장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먼저 지난 주말 전주 호성동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 민생현장 살피

전주 호성동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찾아 관리실태 점검

전춘성 진안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민생현장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먼저 전 군수는 지난 주말 전주 호성동에 위치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 군수는 진안산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특별할인행사 준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대응 등 직매장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했다.

명절 성수품과 정육, 채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신선도 유지 등 안전성 점검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시행 등 생활방역 지침의 준수 여부 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나물세트, 축산물세트 등 명절 선물세트의 준비상황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인 고추, 감자, 대파 등 특별 할인 품목의 수급상황 점검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명절맞이 준비를 마쳤다.

특히 진안고원시장과 진안홍삼한방센터, 청년몰 등 민생경제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 생활안정 등 전 분야에 걸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군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키트·우울증 자가진단지 제공·전화상담 등 지원

진안군은 3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중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진안지역에는 코로나19 #4번, #5번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50여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은 감염에 대한 걱정과 타인의 시선, 타인에 대한 피해 등을 우려해 14일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안군은 이처럼 불안해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정신건강 키트를 제공하고, 우울증 자가진단지를 제공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심리지원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상담이 필요하면 진안군보건소(430-8579)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는 심리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며 "주변에서도 '어쩌다 그랬어?' 라는 말보다는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생했어' 등 따뜻한 말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친 군민들에게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슬기롭게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은 겨울 방학을 맞은 관내 학생들이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은 마음힐링 킬트공예, 블록로봇, 에바칭의미공예, 달콤초코케이크 만들기 등 총 4개 프

로그램이 이달 15~26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은 10~24명이며, 참여 신청은 이달 1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탭을 통해 가능하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겨울

방학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력 및 자존감향상, 건강한 정서발달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장수군 청소년들의 즐거운 여가문화공간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신청·접수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3일 2021년도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생을 오는 2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021년 진안사랑장학생 선발(안)을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2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장학금 지급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 성적 등 세부 기준에 의하여 일반·특기·복지·특별 장학생으로 구분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진안사랑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장학금 지급액이 하향조정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고·대학 입학생 장학금 전형은 폐지하고 일반 장학생 선발인원을 확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운영

무주군이 올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등 드론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전문 자격증 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앞두고 2월중 신청자 모집에 나서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과 관련해 사업비 대비 600만원을 포함 모두 1,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관내 농업인,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군은 대상자를 선정한 뒤 무주읍 당산리에 소재한 반딧불드론교육원에서 1주차 이론 및 모의비행 요령, 2주차 기본 비행, 3주차 종합 숙달비행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난취약시설 합동 점검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이를 동안 안전한 명절 나기를 대비해 공용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무주군 주관으로 관련 부서와 안전관리지문단 4개 분야의 민간전문가(건축·소방·전기·가스)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비롯해 터미널 등으로, 이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별 비상대응

을 위한 대책 수립 여부, ▲건축물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누수, ▲소방분야 시설·장비의 적정 확보 및 피난통로 확보, ▲전기·가스 시설물 주변 안전관리실태 확인 등이다.

이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협조와 마스크 착용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이번 설은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